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친구지지 간의 관계 분석

정 영 주 정 영 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우울과 인지적 왜해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분석을 통해 자살생각과 관련된 두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 경로에서 친구지지가 인지적 왜해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중재역할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 친구지지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울산과 부산의 고등학교 2학년 329명을 대상으로 우울, 인지적 왜해, 친구지지, 및 자살생각을 측정하여, 우울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의 경로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로도 유의하였고, 우울이 인지적 왜해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로도 유의하였다. 우울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인지적 왜해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친구지지의 중재역할을 살펴본 결과, 우울이 높은 집단에서는 친구지지 정도에 따라 인지적 왜해가 달라졌으나, 우울이 낮은 집단에서는 친구지지에 따라 인지적 왜해의 차이가 없었다. 친구지지는 인지적 왜해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의 하위 기능에서는 친밀함은 우울과, 도움은 인지적 왜해와, 그리고 신뢰는 자살생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청소년자살, 자살생각, 우울, 인지적 왜해, 친구 지지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3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자살자수는 10,93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자살이 청소년의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03).

자살자가 연구대상이 될 수 없고, 자살 시도 후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를 연구 대상으

* 교신저자 : 정영숙, E-mail: yschong@pusan.ac.kr

로 삼기에는 윤리적, 실제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임수영, 1996), 자살 발생 직후 즉각적인 치료적 개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실행의 한계로 인해 자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자살예방에 목적을 두고, 자살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아울러 자살을 예방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데 관심을 두게 된다(Porkny, 1983).

자살충동 또는 자살생각은 ‘자살을 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White, 1989)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지적되고 있다. Dubow, Blum, Reed 및 Bush(1989)는 자살생각이 자살시도, 자살로 이어지는 자살행위의 연속적 과정의 출발점으로 보았고, Kumar와 Steer(1995) 역시 자살하기 위한 바램, 상상 또는 계획은 실제 자살시도에 앞서는 과정으로, 자살충동이 자살시도의 중요한 예언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Simons와 Murphy(1985)는 아주 경미한 수준의 자살에 대한 생각이라도 후에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제안하면서, 자살예측의 중요한 지표는 자살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보다 ‘자살에 대한 생각’ 그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임을 지적하였다.

자살충동이나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의 자살시도에 대한 주요한 예언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이 자살에 대한 생각(suicidal ideation)을 일으키는지 그 유발요인과 과정을 탐색하는 것은 자살을 이해하고 예방하는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Beck, Kovacs, & Weissman, 1979; Simons & Murphy,

1985). 이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89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84.6%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청소년도 19.2%임을 보고하고 있다. (박경애, 구본용, 김원중, 송종용, 1993). 윤성림(1990)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 634명 중 354명(55.8%)이 자살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었던 우울 정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자살생각에 이르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과 인지적 와해를 살핀 후에, 청소년기의 사회적 자원으로서는 친구의 지지가 갖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친구의 지지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 자살유발 요인으로서 우울 정서

우울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 중의 하나로(Kandel, Ravis, & Davies, 1991; Peter, Paul, & John, 1994), 그 강도(intensity)와 심도(severity)가 지나칠 때 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Calhoun, 1972; Freidman, 1984). 자살을 시도했거나 지속적인 자살생각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40%가 우울증의 주요 증상을 보이는 것이나(Greuling & DeBlasie, 1980), 청소년 자살시도자의 임상적 특성이

우울증 환자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송동호, 이홍식, 전여숙, 정유숙, 1996)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자살이 우울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서 우울은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을 이르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Asarnow, Carson, & Guthrie, 1987; Cole, 1989). 우울이 자살과 관련된 주요 변인이긴 하지만, 우울정서가 또다른 부정적 인지를 유도하여 그 인지로 인해 자살충동이 발생하느냐에 관해서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살을 시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한 시간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자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Baumeister, 1990). 자살충동을 매개하는 인지적 과정이 확인된다면 자살예방을 위한 개입이 이 단계에서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여러 경로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들은 계속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살유발 요인으로서 인지적 와해

자살시도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자살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의사결정 과정이라 할 수 있다(Baumeister, 1990). 이 과정에서는 우울한 정서가 오래 지속되면서 부정적 인지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울한 감정이 부적응적인 인지를 부추겨 자살생

각으로 이끈다는 대표적인 인지 매개 이론으로 Beck(1967)의 무망감 이론과 Baumeister(1990)의 인지적 와해(cognitive deconstruction)* 이론을 들 수 있다.

무망감(hopelessness)은 자신에게 벌어진 실패감, 의기소침, 죄책감, 비참함, 불행 등을 바꿀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신념으로, 자살 행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변인 중 하나이다(Brent, Kalas, Edelbrock, Costello, Dulcan, & Conover, 1986; White, 1989). Beck(1967)은 우울한 환자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고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임상적으로 관찰하여, 무망감이 자살과 더 직접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안하였다. 성인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무망감이 자살과 가장 관련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Beck, 1967; Cole, 1989; White, 1989).

인지적 와해는 Baumeister(1990)의 자기도피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모든 사상에 대하여 의미부여하기를 거부하고 사물과 현상을 피상적, 몰가치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Baumeister는 자살을 “자기로부터의 도피(escape from self)” 즉, “자기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념화하면서 자살에 관한 통합이론을 제시하였다.

“인지적 와해”는 Baumeister의 자살 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인지적 와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자살시도가 용이해진다.

* 대부분의 연구에서 cognitive deconstruction은 인지적 몰락이라고 번역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와해로 사용하기로 한다.

인지적 와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사고의 특성은 미래와 관련된 계획이나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와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시간 조망의 축소(shrinking of time perspective)로 인해, 과거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불안하게 생각하므로 현재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Neuringer & Harris, 1974), 미래의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못하고(Yufit & Benzies, 1973), 문장완성 검사에서 미래지향적 단어를 덜 선택하는 경향은(Greaves, 1971), 시간 조망에서의 와해와 같은 인지적 과정이 자살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인지적 와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터널비전(tunnel vision)을 갖고 있는데, 이는 즉각적인 것에만 협소하고 구체적인 관심을 갖는 구체성(concreteness)을 의미한다. 터널비전을 갖게 되면 의미 있고 통합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워진다. 자살한 사람의 유서에서 추상적인 단어의 사용이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것이나(Henken, 1976), 자살생각을 많이 하거나 자살시도를 한 대학생들이 추상적인 사고보다는 단순하거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에 몰입했었다는 연구 결과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Hendin, 1982). 장기적 목표의 결여(absence of distal goal)로 미래의 목표와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 역시 인지적 와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다(Bhagat, 1976; Cantor, 1976).

인지적 와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또다른 중요한 특징은 모든 것을 피상적이고 무가치

하게 생각하는 의미의 거부이다. 자살시도자는 일, 사랑, 사회적 규범, 대인 관계 등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의미를 부정하고 상황에 대한 대안적인 해석을 회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Douglas, 1967; Edwards & Holden, 2001; Rogers, 2001).

인지적 와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삶을 비합리적으로 사고하는(unreasonable thinking) 경향을 보인다. 대학생 집단에서 자살생각과 자살의지가 인지적 왜곡, 비합리적인 생각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Bonner & Rich, 1987), 우울증으로 정신과에 입원한 환자들의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Ellis & Ratliff, 1986).

행동에 대한 내재화된 억제력이 약화되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탈억제(disinhibition)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과 자기에 대한 평가를 회피하는 수동성과 책임성 또한 인지적 와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기도 하다(Asarnow et al., 1987; Gerber, Nehemkis, Farberow, & Williams, 1981; Linehan, Camper, Chiles, Strosahl, & Shearin, 1987). 또한 인지적 와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결여되어 있는데,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서는 정서 중립적인 과제를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eller & Atkins, 1978).

청소년기는 자신의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기 위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이다(Erikson, 1968). Baumeister (1990)가 제안한 인지적 와해 개념은 정체감 형성을 방해하거나 제거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자

살생각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인 집단에 비해 청소년 집단에서 인지적 왜해가 자살생각과 더 강한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신민섭, 1993), 이를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과 연관시켜 본다면, 청소년들은 고통스러운 체험들을 견디는 힘이 아직 약하여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좌절 경험으로 발생한 불편한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로 인해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Brent et al., 1986).

청소년 자살생각의 보호요인으로서 친구 지지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란 사람을 감정적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문제를 논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충고를 하며, 물질적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Cohen & Willis, 1985). 자살 시도 위험이 높은 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De Wilde, Kienhorst, Diekstra, & Wolter, 1994), 이는 사회적 지지가 자살행동을 감소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Kandel et al., 1991; Morano, Cisler, & Lemerond, 1993; Rudd, 1990).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것이 자살과 연계될 수 있는 것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Cantor(1976)는 자살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친애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자살자들은 내향적이고 고독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친밀성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으며 욕구를 만족시킬 것에 대한 기대가 상실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기 전에 종종 한 사람에게 에너지가 과도하게 투자되며,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관계로부터 사회적 고립과 철수를 보이며, 그 관계가 실패할 때 자살시도를 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Ringel(1976)의 주장도 자살시도자들이 친애욕구가 강함을 반영해준다.

Baumeister(1990)의 자살이론에서도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를 갖는 것이 자살을 설명하는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친밀성에 대한 높은 기대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부되는 현실 간의 불일치가 자살에 중요한 것으로 거론된다.

청소년에게 이용가능한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는 부모, 친구, 교사 등이 있다. 부모의 지지와 청소년 자살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자살생각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부모와의 관계에 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살생각을 가진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부모와의 관계가 빈약한 것으로 보고하였다(Strang & Orlofsky, 1990). 또한 자살생각을 가진 청소년과 자살시도를 심각하게 고려한 청소년은 부모의 지지가 부족하다고 지각하며(De Man, Labreche-Gauthier, & Ledue, 1992), 부모와 밀접하고 지지적인 관계는 우울정도에 관계없이 자살생각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Kandel et al., 1991),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중학생의 자살 충동에

있어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수영, 1996).

부모의 지지 뿐만 아니라 친구의 지지도 자살생각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 자살생각을 가진 청소년은 가족과 학교에 대한 애착이나 헌신이 부족하며 동료와의 상호관계가 부족하고(Kandel et al., 1991), 자살 위험이 높은 청소년 집단은 친구 관계가 빈약함을 보여주는데(Cole & Protinsky, 1992), 이는 부모 이외에 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또다른 원천으로서 친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질문은 청소년의 자살을 완화시키는데 부모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가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군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부모, 선임병, 또래, 후임병의 지지가 자살 생각을 의미 있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의 지지보다 동료(선임병, 또래, 후임병)로부터의 지각된 지지가 자살 생각을 억제하는데 더 효과적임을 보고하고 있다(김영환, 1998).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자살 예방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족 관련 변인만을 중시 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상대적 효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함을 제시해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 친밀성에 대한 욕구는 또래와의 친구 관계를 통해 가장 쉽게 만족시킬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Larson, Kubey, & Colletti, 1989), 우정, 가치 확인, 친밀감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하여 부모보다는 친구들에게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Furman & Buhrmester, 1985).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친구와 의논하겠다는 비율이(26.8%) 부모와 의논하겠다는(5.3%)는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결과(박경애 등, 1993)는 친구가 청소년에게 가장 친숙하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자원이면서 자살생각을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사회적 자원임을 지지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친구관계(friendship)는 상호성을 전제로 친구 사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정서적 지원 및 갈등을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Furman, 1996). 따라서 적용에 문제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친구의 지지가 있는 경우, 부적응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Paker & Asher, 1993; Vandell & Hembree, 1994). Mendelson과 Aboud(1999)가 제안하는 친구의 기능을 통해 청소년기 사회적 지지로서 친구의 중요한 역할을 살필 수 있다.

첫째, 친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교제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둘째, 친구는 필요한 정보를 주거나 도와주는 '도움'을 제공한다. 셋째는 '친밀감'으로 친구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수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해주고, 개인의 욕구나 기분을 민감하게 알아주는 기능을 한다. 넷째, 친구와의 안정된 관계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신뢰감'을 준다. 다섯째, 친구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존중하는 등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 끝으로, 친구는 어려운 상황에서 격려와 위로 등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친구가 제공하는 이러한 기능에 근거해 볼 때, 개인이 겪는 위기과정에서 동료나 친구들은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새로운 대처방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위기 상태에서도 새로운 도움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진숙, 김용태, 반신환, 이소우, 조성호, 1997). 따라서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은 새로운 도전을 보다 더 건설적으로 처리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스트레스를 보다 쉽게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정서적인 안정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연구 목적

청소년 자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에 대한 비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박경애 등, 1993, 윤성립, 1990). 전통적으로 우울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Kandel, Ravis, & Davies, 1991; Peter, Paul, & John, 1994).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에게서 우울은 자살생각에 이르는 직접적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신민섭 등 1990; Asarnow et al., 1987; Cole, 1989). 그런데 최근 자살생각에는 삶의 의미를 거부하고 비현실적으로 비관적인 생각을 하며,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며 계획을 상실하는 등 인지적 와해가 자살생각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이 제안되었다(Baumeister, 1990).

자살은 충동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당기간 심리적 고통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Baumeister, 1990).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울한 감정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 이외에 우울로 인한 인지적 와해와 자살생각 간의 연계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강력한 예측인자로 확인된 우울한 기분과 Baumeister(1990)가 제안한 인지적 와해 개념을 근거로 자살생각으로 이르게 되는 두 가지 경로를 상정하고, 각 경로가 유의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우울한 기분이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와 우울 정서가 인지적 와해에 영향을 주고 인지적 와해가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한지, 그리고 이 경로에서 자살생각에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자살에 이르게 되는 자살관련 변인들의 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살과 관련된 변인들을 조정하여 자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인을 찾는 작업도 필요하다. 청소년기 주요 사회적 지지 자원 중의 하나인 친구의 지지는 이런 보호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Furman, 1996).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살행동이나 우울이 적다는 결과는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Kandel et al., 1991; Morano, Cisler, & Lemerond, 1993; Rudd, 1990),

친구의 지지 기능과 관련하여 Mendelson과 Aboud(1999)는 청소년기의 친구는 교제의 즐거움, 도움제공, 친밀감, 신뢰감, 상호인정, 및 격려와 위로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을 제

공하는 중요한 존재임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에서 친구의 지지는 우울, 인지적 와해, 그리고 자살생각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를 살핌으로서, 친구의 지지가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물음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청소년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로와 Baumeister의 제안처럼 우울이 인지적 와해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 중 어느 경로가 유의한 경로인지, 아니면 두 경로 모두 유의한 경로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 친구의 지지와 우울 또는 인지적 와해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친구의 지지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132명과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187명으로 총 329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교는 남, 여 공학의 인문계 고등학교로 울산과 부산의 중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학교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329명 중 여학생은 112명(34%), 남학생은 217명(66%)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우울, 인지적 와해, 친구지지, 그리고 자살생각은 모두 설문지를 통해 측정되었고, 설문지의 실시는 수업담당교사에 의해 집단적으로 실시되었다. 수업담당교사는 설문지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자에 의해 설문지 실시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측정 도구

우울 척도(CES-DC)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귀연(1994)이 번안하여 사용한 CES-DC(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Faulstich, Carey, Ruggiero, Enyart, 및 Gresham(1986)이 아동과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것을 전귀연이 번안한 것이다. 원래 이 척도는 무력감, 외로움, 무가치감의 세 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무력감과 무가치감 요인이 자살과 상관이 높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우선유, 1999) 본 연구에서는 무력감을 재는 11문항과 무가치감을 재는 7문항, 총 18문항으로 우울을 측정하였다.

무력감을 재는 문항에는 “요즘은 재미있는 일이 별로 없다”, “매사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가치감은 “매사에 걱정스럽고 마음속에 확신이 없다”, “모든 나쁜 일은 나 때문에 생긴 것이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거의 그렇다(5))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18점에서 90점이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무력감은 .867,

무가치감은 .842, 그리고 전체 우울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915이었다.

인지적 왜해 척도(SES) 인지적 왜해는 신민섭(1993)이 제작한 정상집단용 단축형 35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도피척도(Scale for Escape from Self: SES)로 측정하였다. 신민섭의 자기도피 척도에서는 Baumeister(1990)가 제시한 인지적 왜해 상태의 특성인 시간적 조망의 축소, 인지적 경직성 및 구체성, 의미의 거부, 탈억제와 수동성 및 감정의 결여를 측정한다. 인지적 왜해 척도에는 “요즘은 생활이 한없이 권태롭다”, “나의 정신을 모두 빼앗길만한 스킬 있는 일을 찾고 있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채점되어 전체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35점까지이다. 본 연구에서 인지적 왜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874였다.

친구지지 척도 친구의 지지는 이은혜와 고윤주(1999)가 번안하고 수정한 McGill의 친구관계 질문지(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Friend's Function)를 사용하였다. McGill의 친구관계 질문지는 Mendelson과 Aboud(1999)가 제작하였으며 친구가 제공할 수 있는 하위 기능으로 교제의 즐거움, 도움, 친밀감, 신뢰, 인정, 정서적 안정의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교제의 즐거움이 .898, 도움이 .870, 친밀감이 .906, 신뢰가 .936, 인정이 .848, 그리고 정서

적 안정이 .888이었고, 친구지원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973이었다.

각 문항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제의 즐거움을 재는 문항에는 “OO와 함께 있는 것은 아주 재미있다”, 도움을 재는 문항에는 “OO는 내가 필요할 때 도와준다”, 친밀감을 재는 문항에는 “OO에게는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신뢰를 재는 문항에는 “OO는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서로 못 만나도 계속 친구이기를 원할 것이다”, 인정을 재는 문항에는 “OO는 나를 똑똑하다고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재는 문항에는 “OO는 새로운 상황에서 내가 편안하게 느끼게 해준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섯 가지 기능을 재는 문항은 각각 5문항으로 총 3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9점 척도(0=전혀 아니다, 8=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자살생각 척도(SSI)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민섭 등(1990)이 변형시킨 SSI 척도를 최태산(1997)이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SSI(Scale for Suicidal Ideation)척도는 Beck, Kovacs, 및 Weissman(1979)이 만든 것으로 원래 임상 면접을 통해 임상가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많은 피험자들을 일일이 면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신민섭 등(1990)이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변형시켰다. SSI는 본래 총 18문항,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최태산(1997)이 요인분석을 통해 18문항에서 14문항을 선정하고 각 문항을 5점 척도로 구성하

었다. 자살생각 척도 문항의 예로는 “살고 싶은 소망은?”, “죽고 싶은 소망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려는 욕구가 있다” 등이 있다. 자살생각 척도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없다(1)에서 많이 있다(5)’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 범위는 14점에서 70점까지이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25였다.

결 과

자살생각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우울에서 자살생각으로 이르는 인과적 경로를 검토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전반적인 단순 상관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와해, 및 친구지지의 전반적 타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간의 단순 상관 정도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을 보면, 우울과 인지적 와해는 모두 자살생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각각 $r=.60$; $r=.51$, $p<.001$). 그리고 우울과 인지적 와해도 서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r=.67$, $p<.001$). 이 결과는 우울이 높을수록 인지적 와해가 심하며, 우울이 높을수록 자살생각도 더 많고, 인지적 와해가 심할수록 자살생각도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과 인지적 와해가 자살생각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에, 친구지지(전체)는 이와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친구지지와

우울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r= -.33$, $p<.01$), 친구지지와 인지적 와해도 서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r= -.32$, $p<.01$), 그리고 친구지지와 자살생각 역시 유의한 부적 상관($r= -.28$, $p<.01$)을 보이고 있다. 즉, 친구의 지지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살생각과 이와 관련된 우울과 인지적 와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의 하위 기능과 우울, 인지적 와해,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보면, 친밀함은 우울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r= -.32$, $p<.01$)을, 도움은 인지적 와해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r= -.30$, $p<.01$)을, 신뢰는 자살생각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r= -.30$, $p<.01$) 나타내었다. 즉 친구와 덜 친밀할수록 우울하고, 도움을 적게 받을수록 인지적 와해가 더 많고, 신뢰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우울, 인지적 와해, 자살생각의 경로 분석

표 1에 제시된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 양상을 통해, 우울과 인지적 와해는 자살생각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 관심은 우울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직접적 경로와 우울이 인지적 와해를 거쳐 자살생각에 이르는 간접적인 경로가 유의한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 인지적 와해를 순차적 경로에 따라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였다. 우울에서 자살생각으로 이르는 직접적 경로와 인지적 와해를

표 1. 우울, 인지적 와해, 자살생각, 친구지지(전체), 친구지지의 하위 기능(교제의 즐거움, 친밀함, 신뢰, 인정, 정서적 안정) 간의 상관계수^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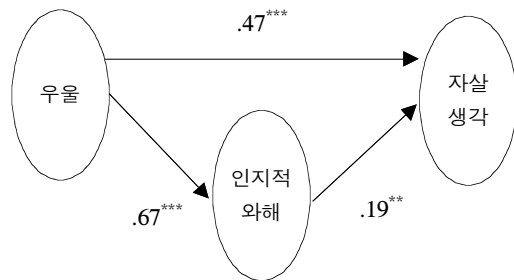
	우울	인지적 와해	자살 생각	친구지지의 하위 기능					
				교제의 즐거움	도움	친밀함	신뢰	인정	정서적 안정
인지적 와해	.67								
자살생각	.60	.51							
교제의 즐거움	-.30	-.29	-.28						
도움	-.28	-.30	-.24	.78					
친밀함	-.32	-.29	-.25	.74	.78				
신뢰	-.32	-.28	-.30	.72	.76	.83			
인정	-.27	-.27	-.20	.71	.75	.72	.72		
정서적 안정	-.29	-.30	-.23	.76	.80	.81	.77	.82	
친구지지(전체)	-.33	-.32	-.28	.87	.91	.91	.89	.88	.92

^a 모든 상관계수들은 $p < .01$ 에서 유의함(양방향 검증).

표 2. 자살생각 관련변인들의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F
인지적 와해	우울	.67***	.45***	267.08***
	인지적 와해			
자살생각	우울	.47***	.38***	101.35***
	인지적 와해	.19**		

** $p < .01$ *** $p < .001$



$R^2 = .38$

그림 1. 자살생각 관련변인들의 경로분석

거쳐 자살생각에 이르는 간접적 경로의 경로 계수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을 보면, 우울($\beta = .47, p < .001$)과 인지적 와해($\beta = .19, p < .01$) 모두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인지적 와해를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유의하였고, 우울이 인지적 와해를 거쳐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을 통해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총효과를 산출해 보면,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47 이고, 우울이 인지적 와해를 통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13 으로,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총효과는 .60 이었다.

인지적 와해와 자살생각의 중재변인으로서 친구지지

본 연구에서 제기한 두 번째 물음은 우울에서 자살생각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친구의 지지는 인지적 와해나 자살생각을 중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경로분석에서 얻어진 경로를 근거로, 친구지지가 우울이 인지적 와해로 가는 경로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인지적 와해에서 자살생각으로 가는 경로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지 살펴 보았다.

우울에서 인지적 와해로 가는 경로에서 친구지지가 중재 역할을 한다면, 우울이 일정할 때, 친구지지 정도에 따라 인지적 와해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친구지지의

중재 역할을 확인하는 한 방법으로 우울정도와 친구지지 정도에 따른 인지적 와해에 대한 변량분석을 통해 두 변인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우울과 친구지지를 각 측정치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균치 이상을 상집단으로 평균치 미만을 하집단으로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 다음 우울 상/하집단과 친구지지 상/하집단에 따른 인지적 와해 정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참조).

변량분석 결과, 우울($F(1, 325)=110.72, p<.001$)과 친구지지($F(1, 325)=11.16, p<.01$)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우울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였다. $F(1, 325)=4.21, p<.05$. 우울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효과의 구체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검증한 결과, 우울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친구지지에 따라 인지적 와해 정도가 차이가 있었지만 ($t(156)=-3.31, p<.001$), 우울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친구지지에 따른 인지적 와해 정도에 차이가 없었다. 우울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이번에는 친구지지가 인지적 와해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즉, 인지적 와해가 있더라도 친구의 지지가 있으면 자살생각이 줄어드는지 살펴보았다.

인지적 와해와 친구지지의 각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균치 이상을 상집단으로 평균치 미만을 하집단으로 구분하여, 인지적 와해와 친구지지에 따른 자살생각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표 3. 우울과 친구지지에 따른 인지적 와해의 이원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우울(A)	2.699	1	2.699	110.72***
친구 지지 (B)	.272	1	.272	11.16**
A*B	.103	1	.103	4.21*
오차	7.923	325	.024	

* $p<.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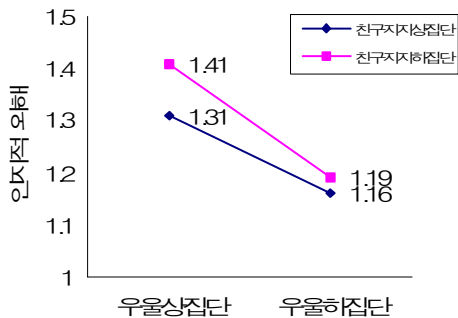


그림 2 인지적 왜해에 대한 우울과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표 4. 인지적 왜해와 친구지지에 따른 자살생각의 이원 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인지적 왜해(A)	14.316	1	14.316	58.37***
친구 지지(B)	.486	1	.486	1.98
A*B	.376	1	.376	1.53
오차	79.712	325	.245	

*** $p < .001$

표 4를 보면, 자살생각에 미치는 인지적 왜해와 친구지지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살생각에 대한 인지적 왜해의 주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325) = 58.37, p < .001$). 즉, 인지적 왜해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는 친구지지의 중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자살생각에 대한 친구지지 하위 기능의 회귀분석

앞의 분석에서 친구지지는 인지적 왜해에 의한 자살생각을 중재하지는 못하지만, 우울

표 5. 우울에 대한 친구지지 하위 기능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B	β	t	R^2	F
친밀함	-.15	-.32	-6.15***	.10	37.82***
교제의 즐거움	-	-.14	-1.84	-	-
도움	-	-.07	-.79	-	-
신뢰	-	-.15	-1.66	-	-
인정	-	-.08	-1.02	-	-
정서적 안정	-	-.10	-1.07	-	-

*** $p < .001$

이 높은 집단에서는 친구지지가 우울로 인한 인지적 왜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지지가 경로에 따라 부분적으로 중재 역할을 보이는 점에서, 친구지지는 우울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친구는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제공한다. Mendelson과 Aboud(1999)가 제안한 친구지지를 구성하고 있는 여섯 가지 하위 기능(교제의 즐거움, 도움, 친밀함, 신뢰, 인정, 정서안정)이 우울, 인지적 왜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친구지지가 자살생각과 관련된 변인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5에는 우울에 대한 친구지지가 갖는 하위 여섯 가지 기능의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5를 보면, 친구지지 중 친밀함만이 우울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2, p < .001$). 친구가 제공하는 다른 하위 기능들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인지적 와해에 대한 친구지지 하위 기능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B	β	t	R ²	F
도움	-.04	-.30	-5.73***	.09	32.64***
교제의 즐거움	-	-.13	-1.54	-	-
친밀함	-	-.14	-1.61	-	-
신뢰	-	-.12	-1.45	-	-
인정	-	-.10	-1.29	-	-
정서적 안정	-	-.13	-1.44	-	-

*** $p < .001$

표 7. 자살생각에 대한 친구지지 하위 기능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B	β	t	R ²	F
신뢰	-.12	-.30	-5.64***	.09	31.83***
교제의 즐거움	-	-.14	-1.89	-	-
도움	-	-.03	-.41	-	-
친밀함	-	-.01	-.08	-	-
인정	-	-.05	.66	-	-
정서적 안정	-	-.01	.08	-	-

*** $p < .001$

인지적 와해에 대한 친구지지의 하위 기능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표 6 참조), 친구지지의 하위 기능 중 도움만이 인지적 와해에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고($\beta = -.30, p < .001$), 나머지 기능들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살생각에 대한 친구지지 하위기능의 회귀분석에서는(표 7 참조), 친구지지 중 신뢰($\beta = -.30, p < .001$)만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

는 시점에서 자살생각이 자살시도의 강력한 지표가 될 수 있음에 근거하여(Dubow et al., 1989; Kumar & Steer, 1995; Simons & Murphy, 1985), 본 연구는 자살생각에 이르는 두 가지 경로를 가정하고, 고등학교 2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이르는 이 두 경로가 유의한 경로인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 경로는 청소년의 자살예측의 주요 정서인 우울이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Baumeister(1990)가 제안한 바와 같이, 우울한 정서가 인지적 와해와 같은 인지적 부적응 상태를 거쳐 자살생각에 이르게 되는 경로이다.

경로 분석 결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우울이 청소년의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Calhoun, 1972; Freidman, 1984; Kandel, et al., 1991; Peter et al., 1994). 이 결과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 뿐 아니라(신민섭 등, 1990; Asarnow et al., 1987; Cole, 1989), 청소년 중기에 있는 고등학생 역시 우울은 자살생각에 이르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경로분석 결과, 우울은 인지적 와해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자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이 인지적 와해를 통해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다는 것은 인지적 와해를 자살의 핵심으로 본 Baumeister(1990)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 인지적 와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는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 우울정서가 자살생각에 더 중요한 관련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우울이 부정적 사고인 인지적 와해를 거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더 우세하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지만(박광배, 신민섭, 1991; 신민섭 등, 1990), 성인에 비해 청소년 집단에서 인지적 와해가 자살생각과 더 관련이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기에(신민섭, 1993),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과 인지적 와해 간의 상대적 중요성은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경로 분석 결과, 인지적 와해가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으나, 우울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 비해 훨씬 경로계수가 낮고, 우울에서 인지적 와해를 거쳐 자살생각에 이르는 간접효과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은, 우울이 인지적 정보처리 과정을 거쳐 자살생각에 이른다고 제안하는 Beck(1967)의 이론이나 Baumeister(1990)의 이론에서 자살과 관련된 부정적 인지 과정에 대한 연구가 더 정교화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어떤 조건하에서 우울이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이르게 되는지, 어떤 조건하에서는 우울이 인지적 와해와 같은 부정적 인지과정을 거쳐 자살생각에 이르게 되는지를 구분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울이 자살생각에 보다 큰 영향을 주지만, 인지적 와해와 같은 부정적 인지는 자살생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지적 와해, 우울 및 자살생각은 서로 정적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이경진, 2003; 임수영,

1996; Cole, 1989), 인지적 와해 또한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Baumeister(1990)의 제안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친구의 지지가 우울로 인한 인지적 와해나 자살생각을 중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우울이 낮은 집단에서는 친구지지에 따라 인지적 와해 정도가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우울이 높은 집단에서는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 친구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집단보다 인지적 와해가 더 적게 나타나, 친구지지가 우울한 청소년들의 인지적 와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변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친구지지가 인지적 와해를 중재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친구지지는 인지적 와해로 인한 자살생각을 중재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로서는 친구의 지지는 우울한 청소년들이 인지적 와해와 같은 부적응적 인지로 진행되는 것에도움을 주지만, 일단 부적응적 인지 상태에 이르게 된 후에는 친구의 지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자살관련 변인에 따라 친구지지의 효과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친구지지가 우울이 인지적 와해로 진행되는 데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자살과 관련된 다른 변인들과 친구지지 간의 관련성을 좀 더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친구지지는 우울, 인지적 와해, 그리고 자살생각과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는데, 이 결과는 자살시도 위험이 높은 청소년들이 친구관계가 빈약

하고 사회적 지지가 낮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Cole et al., 1992; De Wilde, Kienhorst, et al., 1994; Kandel, et al., 1991; Morano et al., 1993; Rudd, 1990).

친구의 지지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은 친구의 지지로 인해 제공되는 다양한 기능 중 어떤 기능들이 우울, 인지적 와해, 또는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Mendelson과 Aboud(1999)가 제안한 친구가 제공할 수 있는 여섯 가지 기능(교제의 즐거움, 도움, 친밀감, 신뢰, 인정, 정서적 안정)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친구가 제공하는 측면에 따라 우울, 인지적 와해, 그리고 자살생각 간의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친구의 지지 기능과 우울간의 관계를 보면, 친구와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가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지각할수록 인지적 와해는 낮았다. 그리고 친구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와 친밀하면 우울한 기분이 완화될 수 있고, 친구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인지적 와해 상태에 덜 빠지게 되며, 친구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덜 한다는 것이다.

친밀성이 우울을 완화시킨다는 결과는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친밀성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는 연구들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Baumeister, 1990; Cantor, 1976; Ringel, 1976). 친밀성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경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은 큰 스트레스임에 틀림없다. 그 결과, 친밀감의 미충족은 우울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친밀감이 높은 사람들이

라면 친구와의 친밀감을 느낄수록 덜 우울해질 것이다.

친구의 도움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인지적 와해가 낮다는 것은 친구가 위기 상태에서 새로운 도움을 찾도록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김진숙 등, 1997). 청소년에게는 친구관계가 중요한데, 특히 친구에 대한 신뢰는 친구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이은혜, 고윤주, 1999). 소중한 의미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은 자살생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살생각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지지 원천으로서 부모의 지지에 관심을 두어 왔다(임수영, 1996; De Man et al., 1992; Kandel et al., 1991; Strang & Orlofsky, 1990). 그런데 발달적으로 보면, 부모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원의 원천이었던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 초기부터 후기까지는 친구는 부모와 함께 중요한 사회적 지원이 된다. 특히 친구는 청소년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자원이다. 친구관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기능과 우울, 인지적 와해, 및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살핀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친구지지는 우울로 인한 인지적 와해를 중재함으로써 자살생각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친구의 지원 기능은 연령에 따라 양적인 변화뿐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일어나, 중학생에게는 사회정서적 지원이, 고등학생에게는 정서적 지원이, 대학생에게는 도구적 지원이 중요해지는 발달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이은혜, 고윤주, 오원정, 2000). 이는 우

울이나 인지적 왜해 등이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친구지지의 하위기능들이 자살생각과 관련된 효과에서 발달적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자살이 유발되는 과정에서도 인지적 성숙도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자살에 관한 연구시 발달적 관점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친구지지의 하위 기능들이 자살생각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Erikson, 1968), 사회구성원들은 누구나 청소년자살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친구관계를 통한 자살생각 예방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살의 선행 원인으로 간주되는 우울이 높은 집단에게 친구관계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인지적 왜해나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청소년의 자살예방에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김영환 (1998). 부적 사건 경험, 완벽주의적 성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자살 생각 간의 상관연구.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진숙, 김용태, 반신환, 이소우, 조성호 (1997). 청소년 위기 상담.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박경애, 구본용, 김원중, 송종용 (1993). 청소년 자살행동 연구.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박광배, 신민섭 (1991). 고등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298-314.

송동호, 이홍식, 전여숙, 정유숙 (1996). 청소년 자살기도자의 정신의학적 특성. 신경정신의학, 35, 1366-1373.

신민섭 (1993). 자살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도피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 1-19.

우선유 (1999).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 석사학위 논문.

윤성립 (1990). 자살생각 경험을 지닌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경진 (2003). 청소년 자살의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은혜, 고윤주 (1999). 대학생의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기능 및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변인간의 관계. 교육학연구, 37, 201-220.

이은혜, 고윤주, 오원정 (2000). 청소년기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지원 및 갈등해결.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3, 105-121.

임수영 (1996).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지지의 완충 효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전귀연 (199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 적응성 및 가족체계 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
- 최태산 (1997). 청소년 비행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가족역동의 심리적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 통계청 (2003). 사망 원인 통계 연보.
- Asarnow, J. R., Carson, G. A., & Guthrie, D. (1987). Coping strategies, self-perceptions, hopelessness, and perceived family environments in depressed and suicid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361-366.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 140-153.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e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43-352.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ner Medical Devision, Hapner & Row.
- Bhagat, M. (1976). The spouses of attempted suicides: A personality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8*, 44-46.
- Bonner, R. L., & Rich, A. R. (1987). Toward a predictive model of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Some preliminary data in college stud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7*, 50-63.
- Brent, D. A., Kalas, R., Edelbrock, C., Costello, A. J., Dulcan, M. K., & Conover, N. C. (1986). Psychology and its relationship to suicide ideation childhood and adolescent.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5*, 666-673.
- Calhoun, J. F. (1972). *Abnormal Psychology*, New York: Random House.
- Cantor, P. C. (1976). Personality characteristics found among youthful female suicide attempt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324-329.
- Cohen, S., & Willi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le, D. A. (1989). Psychopathology of adolescent suicide: Hopelessness, coping belief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248-255.
- Cole, D. E., & Protinsky, H. O. (1992).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dolescence, 27(108)*,

- 813-818.
- De Man, A. F., Labreche-Gauthier, & Ledue, C. P. (1992).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in French-Canadian adolescents: Personal variables, stress, and social support. *Adolescence, 28*(112), 820-830.
- De Wilde, E. J., Kienhorst, C. W. M., Diekstra, R. F. W., & Wolter, W. H. G. (1994).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sychologically distressed adolescents at high risk for attempting suicide. *Adolescence, 29*(113), 49-60.
- Douglas, J. D. (1967). *The social meanings of suicid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ubow, E. F., Blum, M. C., Reed, J., & Bush, E. (1989).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in community sample of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8-166.
- Edwards, M. J., & Holden, R. R. (2001). Coping, Meaning in life, and suicidal manifestations: Examining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7*, 1517-1534.
- Ellis, T. E., & Ratliff, K. G. (1986).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suicidal and nonsuicidal psychiatric inpatien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625-634.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aulstich, M. E., Carey, M. P., Ruggiero, L., Enyart, P., & Gresham, F. (1986). Assessment of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n evalu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DES-DC).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8), 1024-1027
- Freidman, R. C. (1984). Family History of Illness in the Seriously Suicide Adolescent: A Life Cycle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4*, 390-397.
- Furman, W. (1996). The measurement of friendship perception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pp, 41-65).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conceptions of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2.
- Geller, A. M., & Atkins, A. (1978). Cognitive and personality factors in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860-868.
- Gerber, K. E., Nehemkis, A. M., Farberow, N. L., & Williams, J. (1981). Indirect self-destructive behavior in chronic

- hemodialysis pati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1, 31-42.
- Greaves, G. (1971). Temporal orientation in suicidal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33, 1020.
- Greuling, J. W., & DeBlasie, R. R. (1980). Adolescent suicide. *Adolescence*, 23, 13-19.
- Hendin, H. (1982). *Suicide in America*. New York: Norton.
- Henken, V. J. (1976). Banality reinvestigated: A computer-based content analysis of suicidal and forced-death docum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6, 36-43.
- Kandel, D. B., Ravis, & Davies, M. (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289-309.
- Kumar, G., & Steer, R. (1995). Psychosocial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Fall95, 25(3), 339.
- Larson, R., Kubey, R., & Colletti, J. (1989). Changing channels: Early adolescent media choices and shifting investm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 583-599.
- Linehan, M. M., Camper, P., Chiles, J. A., Strosahl, K., & Shearin, E. (1987).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nd Parasuicid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1-12.
- Mendelson, M. J., & Aboud, F. E. (1999).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in lat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1, 130-132.
- Morano, C., Cisler, R. A., & Lemerond, J. (1993).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Loss, insufficient family support, and hopelessness. *Adolescence*, 28(112), 851-865.
- Neuringer, C., & Harris, R. M. (1974). The perception of the passage of time among death-involved hospital patients. *Life-Threatening Behavior*, 4, 240-254.
- Pa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link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Peter, M. L., Paul, R., & John, R. S. (1994).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future adolescent suicide attemp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2), 297-305.
- Porkny, A. D. (1983) Prediction of suicide in psychiatric patient. *Archive General Psychiatry*, 40, 249-157.
- Ringel, E. (1976). The presuicidal syndrome.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6, 131-149.

- Rogers, J. R. (2001). Theoretical grounding: The "missing link" in suicide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9, 16-25.
- Rudd, M. D. (1990). An Integrative Model of Suicide Ide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0, 16-30.
- Simons, R. L., & Murphy, P. I. (1985). Sex Difference in the Cause of Adolescent Suicide ide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5), 423-434.
- Strang, S. P., & Orlofsky, J. L. (1990). Factors underlying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A test of Teicher and Jacobs' model. *Journal of Adolescence*, 13, 39-52.
- Vandell, D. L., & Hembree, S. E. (1994). Peer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Independent contributors to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Merill-Palmer Quarterly*, 40, 461-477.
- White, J. L. (1989). *The troubled adolescent*. New York: Pergamon Press.
- Yufit, R. I., & Benzies, B. (1973). Assessing suicidal potential by time perspective. *Life-Threatening Behavior*, 3, 270-282.

1차 원고 접수: 2007. 1. 12
수정 원고 접수: 2007. 2. 16
최종게재결정: 2007. 2. 17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Cognitive Deconstruction, Perceived Support from Friend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Young-joo Chong Young-sook C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wo possible paths from depression to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One is a direct path from depression to suicidal ideation, and the other is indirect path from depression through cognitive deconstruction to suicidal ideation. The second purpose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upport from friend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suicidal ideation. The data was gathered from 329 adolescents attending senior high schools in Ulsan and Pusan. In path analysis using with SPSS 12.0, we found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f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and the indirect influence of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via cognitive deconstruction. The direct effect of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was more stronger than indirect effect. The direct influence of cognitive deconstruction on suicidal ideation was also significant. In testing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upport from friend, it was found that perceived support from friend moderated the negative effect of depression on cognitive deconstruction. but did not moderate the negative effect of cognitive deconstruction on suicidal ideation. In additional multiple regression based on six functions of friend's support, intimacy was negatively related with depression, helping was negatively related with cognitive deconstruction, and trust was negatively related with suicidal ideation. It suggests that enhanced perceived support from friend can play as a protective factor for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key words: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cognitive deconstruction, perceived support from friend